

2020년 2월 16일 “(성경의 큰 숲 보기 25) 예레미야: 마음에 새기는 새 언약”(렘 31:31-34)

국가의 패망이 코 앞에 닥쳤을 때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들을 향한 어떤 새 일을 계획 하시는지 살피겠습니다.

[1] 예레미야서의 배경

예레미야는 바벨론 제국에 의한 조국의 패망(BC 586)을 몸으로 경험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1:10 ‘.. 못 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네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였다’

이 말씀에 따른 사역을 할 때 그는 많은 배척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런 힘든 일을 시키시는 이유는 백성들이 후에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고,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선지자가 무엇을 허물고 파괴하는지 두 가지를 대표로 본다면,

(1) 다윗 언약(삼하 7) - 다윗의 후손을 통해 그의 왕국을 영원히 하시겠다고 한 언약입니다. 다윗의 왕국은 모든 면에서 큰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제사장 나라로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언약에 따라 다윗 왕국이 재현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새 언약에 기초한 범 인류적인 다윗의 나라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은 소중하지만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곡해된 그들의 해석과 주장을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2) 성전 파괴 - 이스라엘 종교국가에서 가장 큰 상징은 율법과 성전이었기 때문에 성전의 존립은 그들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은 지켜질 것이며, 성전을 섬기는 그들 또한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성전 파괴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성전은 무너지고 백성은 잡혀가고, 그 후에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말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져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집착하고 있는 건물의 시대를 넘어 새 방식으로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 임재하시며 역사하시는 새 날이 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줄이면, 다윗 언약과 성전의 참 의미를 다시 심고, 세우기 위해서 민족의 시련이라는 역사적 일들이 허용되고 있음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내면에서부터 일어나야 할 근본적인 개혁을 외쳤던 것입니다.

[2] 옛 언약과 다른 새 언약

31:23 절부터 보면, 전에는 뽑아내고 부수고 무너뜨렸으나 포로로 잡혀 간 사람들이 돌아올 때에 심고 세우실 것인데, 그때가 오면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 (1) **31:33a** -> 율법(말씀)을 가슴 속에 넣어 주심(새김)
- (2) **31:33b** -> ‘그들의 하나님 - 나의 백성’
- (3) **31:34a** -> 모두가 주님을 알 것이다.
- (4) **31:34b** -> 죄를 기억치 않으신다

옛 언약은 출애굽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맺은 돌판에 기록된 것입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을 받는 방식, 하나님을 아는 방식이 새로워 짐을 말해줍니다.

(1) 말씀이 마음에 기록됩니다. 말씀이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성도의 진정한 변화의 힘이 됩니다.

- (2) 이에 이어 '너희의 하나님-나의 백성'이라는 성경에 흐르는 핵심 말씀이 선언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사람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백성; 아버지-자녀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 (3)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들이 흠어져서 복음을 널리 알린 이래로 오늘 날에는 세계인구 33%가 하나님을 압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을 널리 계시하셨습니다.
- (4)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떠나 사는 자기중심적 삶을 회개하며 돌아오면 죄를 불문하고 받아 주시며 친밀히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중심의 새 삶을 살게 해줍니다.

[3] 새 언약으로 이루는 나라

포로생활에서 돌아오면 이런 내면적 새 언약에 초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귀환 후에 더 강하고 착해 지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새겨 듣고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며 죄 용서를 누리는 삶, 즉, 새 언약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이루어진 곳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입니다.

귀환 후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말씀 부흥이 일어났지만, 그들은 이내 실패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말씀의 권위를 위해 형식화 하여 지키려 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의 꿈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민족 속으로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당신의 삶 속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주를 들어 올리며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눅 22:20)

당신의 보혈로 예레미야가 전한 새 언약의 삶을 성취하셨고, 우리를 당신께로 매일 초대하십니다. 즉, 이전의 것들을 파괴하고 세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삶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성취의 삶을 배우고 따르며 새 언약의 백성들로 날마다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나눔의 질문> (아래의 질문 외에도 얼마든지 다른 질문과 함께 토의하실 수 있습니다.)

1. 예레미야가 전한 새 언약(31:31-34)을 당신 또한 받은 언약으로 삼고 있습니까? 자신이 이해한 새 언약의 삶이란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2.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새 언약을 주실 때 그들에게서 제거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듯이 당신의 삶에서 제거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